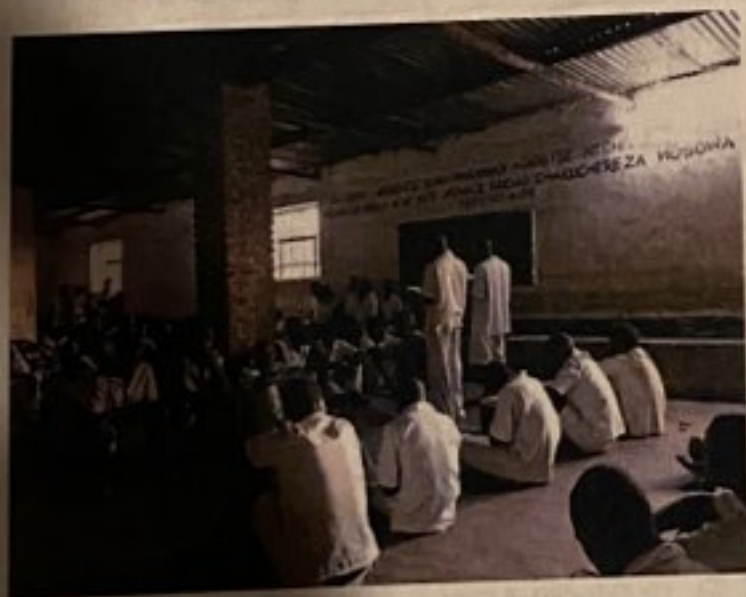


사랑하는 후원자님들께,

너무 오랫동안 소식을 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한 해가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큰 변화를 경험한 터라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는 감흥 역시 예년과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SNS 등을 통해 이런 상황을 헤쳐나가는 진솔한 나눔을 통해 자기 자신이나 인간사회에 대해 많은 것을 새삼 생각하고 배우게 된 계기도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2021 년이 금년과 어떻게 달라질 지 몰라도 2020 년은 2019 년과는 완전히 달라진 한 해로 인류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부디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며 그 선행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이를 갚아 주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기도와 물질로 도우시는 후원자 여러분과 가정에 이루어지시기를 빕니다.

이번 사태를 지나면서 무엇보다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불법행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곳 말라위 교도소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 새벽기도회와 주일예배가 금지되어졌습니다. 5 월부터 공항이 완전히 폐쇄되어 사역현장에 복귀하지 못해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8 월 경에는 재소자들 사이에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더욱 안절부절했었습니다. 그토록 과밀수용된 곳에 전염병이 돌고 있다니 말입니다. 면역력을 급상승시켜 코로나를 이길 힘을 준다는 한방약을 긴급히 확보하여 하늘길이 열리자마자 복귀하였습니다. 지구의 남반부에 위치한 터라 기온이 낮은 6 월과 7 월이 지나면서 다행히 서서히 확진자 숫자가 감소하더니 9 월 중순이 되어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는 말라위 교정당국의 공식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 이튿날로 지체 없이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동트기 전 새벽 재소자 형제들이 한 장소에 모여 누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나눔의 시간은 저



개인으로서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출소 후에도 지속되면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지금까지의 삶의 패턴으로부터 180 도 돌이켜 가족과 이웃을 섬기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구촌의 어떤 교도소에서든 누릴 수 없는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rescue)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찌니라(deliver)’ 하시는데다” 시편 82 편 말씀을 함께 나누며  
지역사회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이 사역을 이루자고 호소하여 40 여  
지역교회의 수백명에 달하는 성도님들이 한달 내내 매일 루첸자 도시  
청결작업과 ‘피난처’

신축공사 현장에 동원되어  
꼭 30 일 만에 공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일단 가해자로부터 피신하도록 한 후  
여러 각도에서 접근하여 회복과 심지어 화해까지  
이룸으로써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할 건물입니다.

12 월 11 일 루첸자 경찰서장에게 열쇠를 전달하고

숙박설비 및 사무실 비품 등을 갖추는 일에도 꾸준히 협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감사한 일은 오랫동안 저희 지역에서 의료선교사역을 수행하시다가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옮겨 사역하시던 이윤희 선교사님께서 코로나 환자들을 치료제와  
침술로 돕기 위해 한달 간 다녀가셨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연약함과 고통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2021 년 1 월부터 중부 카송구 교도소 공장에서 제조되는 영양식 분말을  
인근 잘레카 유엔난민촌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콩고인 교회가 운영하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100 여명의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유엔난민기구가 돌보는 5 세 미만 영유아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역에 어려움이 생길까 한 때 걱정도 했지만 예상보다 그다지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일년 내내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빌 2:13, 공동번역) 아멘, 할렐루야!

말라위에서 김용진 선교사 올림